

# TPB를 적용한 컨벤션 참가 행동모델에 관한 연구

- 제주도 지역 개최 컨벤션을 대상으로 -

A Study on the Behavioral Model of Convention Participants Applying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Focused on Jeju

김철원\* · 김응상\*\* · 박지연\*\*\*

Kim, Chul-Won · Kim, Eung-Sang · Park, Ji-Yeon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orecast a behavior model of Jeju convention participant as verifying whether the facts, suggested i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by Ajzen, such as attitude toward the behavior, subjective norm,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affect significantly the intentional behavior of Jeju Island convention participants. The difference between a first visitor and a return visitor to Jeju island are examined. Research indicates that the subject's behavioral intention is affected by attitude toward the behavior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The subjective norm doesn't affect significantly the behavioral intention. There was no apparent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a first visitor and return visitor to Jeju island in terms of the three factors and relation with behavioral intention. Through this research, it is shown that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is a very useful model to forecast the participation behavior of convention participants and surrounding pressure or opinion, visit experience are not the main fact for the participation behavior. Base on this study, further investigation is required.*

**핵심용어(Key words) :** 계획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행동에 대한 태도(Attitude toward the behavior),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  
지각된 행동조절(Perceived behavioral control),  
행동의도(Behavioral intention)

\* 경희대학교 호텔관광대학 컨벤션경영학과 교수. e-mail: kimcw@khu.ac.kr

\*\*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 지사장. e-mail: es21kim@daum.net

\*\*\* 경희대학교 대학원 컨벤션경영학과 석사. e-mail: with-jyp@khu.ac.kr

## I. 서 론

일찍이 그리스의 아테네 아크로폴리스에서는 많은 사람이 모여 의사결정을 하기 시작하였고, 그 이래 동서양을 막론하고 크고 작은 회의제도가 생겨났다. 회의는 대부분이 정치·행정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것이었으며, 경제적인 접근을 요하는 본격적인 형태의 회의가 나타난 것은 한 세기 남짓에 지나지 않는다(김철원, 2008). 눈에 보이는 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써 '컨벤션'이 나타나게 됨을 의미한다. 컨벤션은 여러 유형의 국제적인 모임(international meeting)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자들이 일정 기간 한 자리에 모여 개최하는 회의와 이에 수반되는 전시회를 비롯한 행사를 의미한다. 최근 들어 컨벤션 산업은 관광, 레저, 숙박, 식음료, 문화오락, 교통통신, 광고 등에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지는 종합산업인 동시에 지식과 정보의 취득과 교류를 촉진시키는 지식기반산업(knowledge-based industry)으로 각국이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김대관·조연·김학준, 2010). 이외에도 컨벤션산업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개최 국가나 지역의 이미지 제고와 관광객 유치 위한 중요 수단으로 고려되고 있다. 나아가 21세기 들어서는 컨벤션을 포함한 MICE(Meeting, Incentives, Convention, Exhibition) 산업이 부각되면서 컨벤션 산업은 관광마케팅의 수단이 아닌 독자적인 산업영역으로 인식되면서 광역 자치 도시를 중심으로 컨벤션센터 건립, 컨벤션 담당 조직인 CVB(convention visitors' bureau) 설립 등의 컨벤션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시장이나 수요에 대비하여 큰 투자를 요하고 지역간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개최지의 특성과 이미지와의 연계, 관광산업과의 연계성, 참가자의 행태나 만족도 분석 등을 통한 다양한 접근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학계에서도 컨벤션에 대한 논의들이 컨벤션 개최지나 컨벤션센터의 선택속성, 이미지, 브랜드 개성 등과의 만족도 또는 추천의도간의 관계(이혜련·윤유식, 2011), 참가자의 참가동기에 따른 만족도 관계(김대관 등, 2010) 등으로 주를 이루고 있어 컨벤션 참가자들의 주관적 인식을 반영한 논의는 미미한 것으로 파악된다. 주관적 인식을 반영한 참가자 행동 논의는 반드시 필요하다. 컨벤션 참가행동은 소비자로서 행동주체인 참가자의 다양한 욕구에 의해 발생되고, 참가실현과 만족 정도는 내외적인 환경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컨벤션에서 사회심리학에서 출발한 인간선택행동이론에 바탕을 둔 연구는 그리 많지 않으며 특히,

소비자의 행동원리로서 선택행동이론을 적용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택행동이론을 적용한 컨벤션 참가자의 참가 행동에 대해 조사하고자 한다. 이미 계획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은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연구를 통하여 소비자의 해당행위와 관련된 개념적 틀의 설명력이 입증되었으며, 단순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행동을 예측하고 검증하는데 적합한 이론으로 평가되고 있다(Lam & Hsu, 2006). 이에 컨벤션 참가행동 또한 과학적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Ajzen의 계획행동이론을 적용하여 컨벤션 참가 행동예측 모델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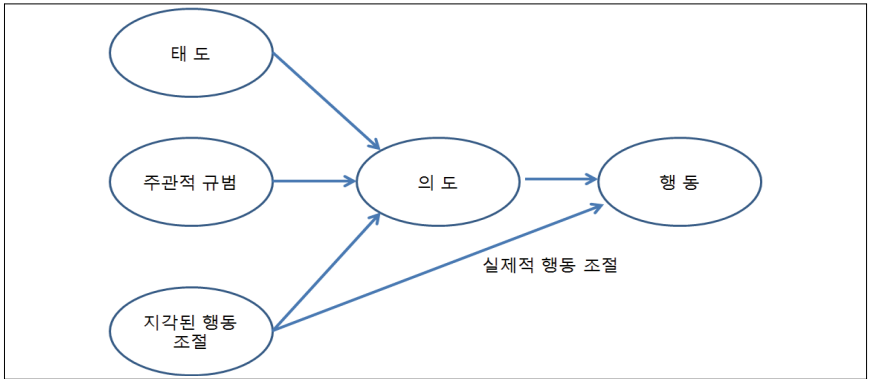
이를 위해 제주도에서 개최된 컨벤션에 참가한 내국인들을 대상으로 행동의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제주도는 내국인에게는 이국적인 정취를 안겨주는 섬으로, 외국인에게는 유네스코 자연부문 3관을 이룬 독특한 문화를 간직한 관광목적지로 명실상부하게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참가자의 개인적 여건은 차지하더라도 제주도가 지니고 있는 접근 교통편의 제약, 수용태세 측면의 불친절, 수수료라 하기엔 무리가 있는 커미션 문제 등의 부정적 요인들로 관광은 물론 컨벤션 참가를 제약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 컨벤션에 참가하는 참가자의 참가 행동을 규명하여 제주관광의 특성화 콘텐츠로서 컨벤션산업 육성,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하며, 나아가 컨벤션 연구 영역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계획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Ajzen(1985)의 계획행동이론은 Fishbein & Ajzen(1975)의 합리적 행동이론에서 전제되는 자의적 조절에 대한 의문에서 제기되었다. 합리적 행동이론의 경우 개인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제안된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흔하게 볼 수 있어 지각된 행동조절이 추가되어 확장된 모형이 계획행동이론이다. 또한 계획행동이론은 인간행동에 있어서 자의성이 강한 행동은 물론 제한적으로 통제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행동 예측도 가능하다(Ajzen, 2005). 이학식·안광호·하영원(2010) 또한 계획행동이론의 경우 인간이 얼마나 쉽게 행동수행을 생각하는가(지각된 행동조절)를 추가함으로써, 합리적 행동이론으로 하기 힘든 상황의 행동을 설명해 준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계획행동이론은 설명변수로서 동기적 요소와 비동기적 요소를 모두 고려하기 때문에 행동예측이론 중 가장

체계적이며 효과적인 모델로 간주된다. 동기적 요소는 태도와 주관적 규범을 의미하고, 비동기적 요소는 특정한 자원에 대한 기회, 기술, 시간 등의 지각된 행동조절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태도와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조절이 클수록 행동수행을 위한 행동의도는 커지며, 의도가 강할수록 행동을 성공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정영미, 2011).



〈그림 1〉 계획행동이론의 경로도(Ajzen, 1991)

한편, 합리적 행동이론에서는 두 가지 요인(태도, 주관적 규범)이 독립적으로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지만, 계획행동이론에 추가된 지각된 행동조절은 독립적으로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에 Ajzen (2005)은 지각된 행동조절이 의도는 물론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주장하였다. 즉, 지각된 행동조절은 의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행동에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도 있고, 직접적으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Ajzen, 2005). 이외에도 계획행동이론은 세 변인 중 주관적 규범의 설명력이 낮음이 제기되고 있으며(차동필, 2009), 이에 일부 학자들은 다양한 사회현상과 행동을 분석하면서 계획행동이론의 3개 변수만으로 설명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추가적인 변수들을 넣어 설명력을 높이고자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을 펼치기도 한다.

1) 행동에 대한 태도(attitude toward the behavior)

태도는 보통 인지적 태도와 감정적 태도로 구분되지만 계획행동이론에서의 태도는 행동수행에 대한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 평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특징이다

(한덕용·이민규, 2001). 즉, 행동에 대한 태도란 사람이나 사물 등 어떤 대상에 대해 일관성을 가지고 호의적이거나 비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학습된 경향으로서 행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의미한다(Sparks, 2007). 학자나 학설에 따라 행동에 대한 태도 정의는 다양하지만, 대부분의 사회심리학자들은 그것이 측정가능하다는 것에는 동의한다(Ajzen, 2005).

## 2)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

주관적 규범은 자신이 그 행동을 해야 한다 또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신만의 믿음에 기초한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인지하고 있는 규범적 측면이나 이 규범에 따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주관적 규범이다. 이러한 주관적 규범은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영향력 있는 준거집단이 어떤 행동에 대하여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가와 관련이 있다. 특히 한국인에게는 주관적 규범이 제품에 대한 태도보다 의사결정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며, 자신과 가까운 타인들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동기가 강할수록 특정 행동을 시도할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다(김형석·조현익, 2008). 따라서 주관적 규범은 자신에게 중요한 타인들의 기대지각과 그들의 기대에 따르려는 순응동기의 함수관계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 3) 지각된 행동조절(perceived behavioral control)

지각된 행동조절은 특정행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 그것이 얼마나 쉬울 것이냐에 대한 개인의 믿음 정도로서 특정상황에 대한 개인의 통제력 정도와 관련된 개념으로, 지각된 자기효능감(perceived self-efficacy)과 매우 유사하다(우형진, 2008). 많은 행동 수행에 있어서 개인의 자의성이 큰 역할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개인의 통제력 결여, 방해물의 존재 등으로 행동에 제약이 따르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계획된 행동조절은 실제 행동조절과 일치할 수 있으나 행동수행에 필요한 자원이나 존재여부에 따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들 사이에 어느 정도 일치되는가에 따라 지각된 행동조절의 행동에 대한 설명력은 달라진다. 뿐만 아니라 지각된 행동조절은 외적인 요소와 내적인 요소 모두를 포함한다(Ajzen, 1991). 외적인 요소는 시간, 돈, 기타 물질적인 자원요소를 의미하고 내적인 요소는 개인의 능력 즉 자아능력(self-efficacy)이나 자신감(self-confidence) 등을 나타낸다. 이러한 지각된 행동조절은 행동의도와 함께 실제행동을 예측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이용되는 결정요인이며, 자원을 많이 갖고 자신감이 클수록 의도하는 행동에 대하여 더 많은 지각된 행동조절력을 갖는다고 한다(Ajzen, 1991).

#### 4) 행동의도(behavioral intention)

행동의도는 어떤 행동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의 성향, 사회적 영향력, 조절 가능성이 함께 작용해서 이루어진다. 그간의 연구들은 의도와 행동과의 상관성이 높음을 밝혀냄으로써 행동의도가 클수록 그 행동을 수행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을 가정하였다. 개인의 특정행동은 그 행동을 추동하는 원인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보다는 의도라는 매개변인을 통해서 실현되며, 따라서 의도는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조절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Ajzen, 2002). 뿐만 아니라 행동을 예측하는데 있어 의도의 정확성을 더하기 위해서는 경과한 시간, 예기치 못한 사건, 의도의 안전성, 새로운 정보의 영향요인을 통제할 수 있다면 의도는 행동의 좋은 예측변수가 될 수 있다.

## 2. 선행연구 고찰

계획행동이론은 내용의 명쾌성과 검증의 용이성으로 소비행동, 관광, 사회학, 교육학 등의 분야에서 인간행동예측 모형으로 이용되어 왔으며, 특히 행동의도와 실제행동을 연구하는데 활발하게 응용되고 있다(임윤정, 2008). Ajzen(1991)은 구직·래저·선거활동, 음주행동, 체중·학점관리 등에서의 행동 비교를 통해 계획행동이론의 우수성을 검증하였으며, 이후 여행목적지 선택(Lam & Hsu, 2006), 와인관광 기획(Sparks, 2007), 소비자의 부정적 구전활동 의도(Cheng, Lam & Hsu, 2006), 친환경 호텔 선택행동(Han, Hsu & Sheu, 2010) 등의 연구들에서 계획행동이론의 설명력이 입증되었다. 국내에서도 음식소비 행위(이준엽·안태기, 2008; 정영미, 2011), 관광여가활동(현용호, 2012), 상품구매행위(최자영·김경자, 2003) 등에서 응용되고 있다. 그 중 관광분야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정희진·이계희(2010)는 일본과 중국관광객들의 한국 재방문 의도에 대한 신한류의 영향 연구에서 태도는 재방문의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주관적 규범과 지각된 행동조절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최영정(2010)은 관광객의 책임관광 행동모델 연구에서 책임관광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책임관광에 대한 태도나 지각된 행동조절보다 주관적 규범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양수(2010)는 계획적 행위이론을 적용하여 여가행동 영향요인을 분석하였으며, Sparks(2007)도 와인 관광객의 관광지 선택요인을 계획행동이론을 적용하여 확인하였고, 임윤정(2008) 또한 한류 문화콘텐츠 중 드라마와 음반을 중심으로 계획행동이론을 적용하였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에서는 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조절이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행동의도는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되었으며, 더불어 계획행동이론의 유용성과 효용성도 검증되었다. 이에 컨벤션 참가자의 행동 예측에 계획행동이론의 적용을 시도하고자 한다.

〈표 1〉 계획행동이론을 적용한 선행연구

연구자	연구 내용
Baloglu & McCleary(1999)	여행 목적지 이미지 구축 모델
Lam & Hsu(2006)	여행목적지 선택의 행동의도 예측
Sparks(2007)	와인 관광자의 관광지 선택요인
임윤정(2008)	외래관광객의 한류 문화콘텐츠 행동예측모형
허향진·김태구(2008)	HIS이용 의도행동 예측 비교 경쟁이론모형 판별
정희진·이계희(2010)	신한류와 일본·중국 관광객들의 재방한 의도
최영정(2010)	관광객의 책임관광 행동모델 구축
김혜자(2011)	중국인의 농촌관광 행동의도
이창기·송학준(2010)	갬블링 열정과 행동의도간 구조관계

자료: 최영정(2010). 계획행동이론을 적용한 관광객의 책임관광 행동모델 구축; 정영미(2011). 외래관광객의 한국문화 친숙도가 한식소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재구성

### III. 연구방법

#### 1. 연구모형 및 가설

본 연구에서는 Ajzen의 계획행동이론의 사회심리적 변수인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조절이 컨벤션 참가자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알아보고, 더불어 방문 빈도에 따른(첫 방문자와 재방문자간) 참가 행동에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하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컨벤션 참가자의 태도는 참가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컨벤션 참가자의 주관적 규범은 참가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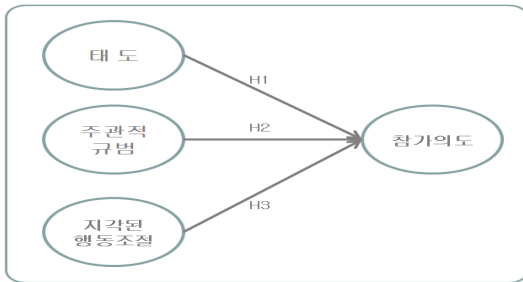
[가설 3]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컨벤션 참가자의 지각된 행동조절은 참가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컨벤션 참가자의 태도와 참가의도 간의 영향

관계에는 첫 방문자와 재방문자간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5]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컨벤션 참가자의 주관적 규범과 참가의도 간 영향관계에는 첫 방문자와 재방문자간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6]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컨벤션 참가자의 지각된 행동조절과 참가의도 간 영향관계에는 첫 방문자와 재방문자간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림 2〉 연구모형도

## 2. 조사설계

설문조사는 2012년 4월 19-20일 양일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학회회의(2012 춘계약학통합학술대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마케팅 담당 한국관광공사 직원(1명)과 사전교육을 받은 조사요원(2명)이 진행하였다. 조사는 응답자가 직접 기입하는 자기기입형 설문지법(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survey method)을 이용하였으며, 설문지를 배포, 작성케 하여 수거하였다. 그 결과 299 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으며, 불성실한 자료를 제외한 238명의 설문을 분석자료로 이용하였다. 설문항목들의 적합성에 대해 학계 교수진 2명과 컨벤션 실무자 2 명이 검토 및 설문항목들을 정제하였으며, 1년 동안 컨벤션 참가 경험이 있는 20 명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의미전달이 부정확한 항목들을 수정, 보완하는 과정을 거쳤다. 구체적으로는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학술대회 참가형태 및 제주도 방문경험(4문항), 학술대회 참가와 관련한 태도(7문항), 참가하는 것에 대한 주관적 규범(3문항), 지각된 행동조절(6문항), 향후 참가의도(4문항) 등 총 24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응답형태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Likert Scale 5점 척도를 이용하였다. 통계분석기법은 빈도분석과 신뢰성분석,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으로 진행하였다.



〈표 2〉 설문 구성

구분	설문내용	출처
행동에 대한 태도	1.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컨벤션 참가는 특별한 경험	Baker, Al-Gahtani & Hubona(2007), Rhodes & Courneya(2004), Shih &
	2.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컨벤션 참가는 유익한 행동	
	3.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컨벤션 참가는 긍정적인 행동	
	4.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컨벤션 참가는 가치있는 행동	
	5.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컨벤션 참가는 필요한 행동	
	6.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컨벤션 참가는 올바른 행동	
	7.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컨벤션 참가는 내가 좋아하는 활동	
주관적 규범	1. 주변 사람들은 내가 컨벤션에 참가하는 것을 지지	Fang(2004),
	2. 주변 사람들은 나의 컨벤션 참가를 긍정적으로 생각	Sparks & Pan
	3. 주변 사람들은 내가 컨벤션에 참가하는 것을 권유	(2009), Bamberg,
지각된 행동 조절	1. 제주도 개최 컨벤션은 원하지만 하면 참가할 수 있음을 확인	Ajzen &
	2. 제주도 개최 컨벤션에 참가할 여건(능력)이 됨	Schmidt(2003),
	3. 제주도 개최 컨벤션에 참가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음	Johnston &
	4. 제주도 개최 컨벤션에 참가할 시간적 여유가 있음	White(2003),
	5. 제주도 개최 컨벤션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	Hrubes, Ajzen &
	6. 제주도 개최 컨벤션은 내 스스로 참가 결정이 가능	Daigle(2001),
참가 의도	1. 향후 제주도 개최 컨벤션에 참가 계획을 세우고 있음	김홍렬 · 이태희 ·
	2. 향후 제주도 개최 컨벤션 참가를 위해 노력할 것임	윤철민(2010),
	3. 향후 제주도 개최 컨벤션에 참가할 의도가 있음	허향진 · 김태구(20
	4. 향후 제주도 개최 컨벤션 참가를 위해 시간과 금전을 투자할 용의가 있음.	08), 송영민(2005)

### 3. 조사대상지 선정배경

제주도는 이국적인 자연경관으로 우리나라 주요 관광목적지 중 하나이다. 최근 10여년간 세계자연유산 등재,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세계지질공원 인증 등 유네스코 자연부문 3관 달성과 올레길 선포 등에 힘입어 2009년부터 관광시장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최근 중국인 관광객 노비자 시행으로 중국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교통, 숙박 등의 기본 인프라 부족을 걱정할 정도에 이르고 있다. 이 외에도 관광목적지로서 제주도의 이미지가 컨벤션 개최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하는 조사결과가 최근 발표되었다. 제주컨벤션뷰로가 120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2011년 제공한 컨벤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행사기간 경험한 '관광'에 만족한다는 의견이 73.3%, 제주를 행사 개최지로 결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 '관광과 연계할 수 있어서'가 46.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가장 만족스러웠던 점에 대해서도 '관광과 연계할 수 있으며,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외국인에게 호감을 줄 수 있다'는 응답이 57.3%

로 나타나는 등 관광목적지로서 제주도의 이미지가 컨벤션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짐작이 된다. 이런 실정에 착안하여 관광목적지로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제주도를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였으며, 이에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컨벤션에 참가하는 컨벤션 참가자의 행동모델을 조명하고자 하였다.

〈표 3〉 2011 제주 컨벤션 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

질문	결과
행사 기간 경험한 관광 만족도	전혀 그렇지 않다(0.8), 그렇지 않다(2.5), 보통이다(23.3), 그렇다(38.3), 매우 그렇다(35.0)
제주를 행사 개최지로 선택한 배경	인센티브 지원제도(28.1), 회의시설 우수(11.8), 관광과 연계성 우수(46.8), 서비스 우수(4.4), 기타(8.9)
행사 진행 관련 만족도	관광과의 연계성(57.3), CVB 지원(16.7), 지원제도와 인센티브 (14.6), 제주지역 자체의 매력(6.3), 골프 등 레저(2.1), 교통을 제한 분야의 만족(1.0), 무비자로 중국학자 참여 용이(1.0), 비용 저렴(1.0)

자료: 제주컨벤션뷰로(2012). 2011년 제주컨벤션뷰로 이용자 고객만족도 조사분석 보고서.

## IV. 분석 결과

### 1. 일반적 특성 분석

응답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이 46.6%, 여성이 53.4%로 나타났고, 연령대는 20대가 가장 높게(52.5%) 나타났으며 학력에서는 대학원 졸업이 53.8%, 대학 졸업이 45%를 구성하여 학력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거주지로는, 서울(38.7%), 경기(24.4%) 순이며, 직업은 전문직이 57.1%, 학생이 37.8%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소득은 100만원 미만부터 500만원 이상까지 고른 분포를 나타내었다. 컨벤션 참가회수는 1회(32.4%), 2회(22.3%), 5회 이상(18.5%) 순이며, 제주도 방문 회수에서는 1회(38.7%), 2회(30.3%), 3회 이상(18.1%) 순으로 나타났고, 동반 형태로는 직장동료와의 참여가 85.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체류기간은 2박3일, 3박4일, 1박2일 순으로 제시되었다.

〈표 4〉 인구통계학적 특성

특성	빈도(명) 구성비(%)		특성	빈도(명) 구성비(%)			
	빈도(명)	구성비(%)		빈도(명)	구성비(%)		
성별	남성	111	46.6	연령	10대	1	.4
	여성	127	53.4		20대	125	52.5

학력	고졸이하	1	.4		30대	72	30.3
	대학교 졸	107	45.0		40대	26	10.9
	대학원 졸	128	53.8		50대	14	5.9
직업	전문직	136	57.1	소득	100만원 미만	29	12.2
	사무직	3	1.3		100-200만원 미만	44	18.5
	서비스직	1	.4		200-300만원 미만	40	16.8
	단순노무직	1	.4		300-400만원 미만	39	16.4
	학생	90	37.8		400-500만원 미만	32	13.4
	기타	4	1.7		500만원 이상	49	20.6
참가 회수	1회	77	32.4	거주지	서울	92	38.7
	2회	53	22.3		부산	1	.4
	3회	43	18.1		인천	15	6.3
	4회	21	8.8		대전	13	5.5
	5회 이상	44	18.5		광주	5	2.1
체류 기간	당일	1	.4	동반 형태	대구	15	6.3
	1박 2일	33	13.9		경기	58	24.4
	2박 3일	125	52.5		강원	6	2.5
	3박 4일	62	26.1		충청	21	8.8
	4박 5일 이상	17	7.1		전라	7	2.9
방문 회수	1회	92	38.7	동반 형태	경상	3	1.3
	2회	72	30.3		혼자	11	4.6
	3회	43	18.1		친구	7	2.9
	4회	13	5.5		가족	5	2.1
	5회 이상	16	6.7		직장 동료	204	85.7

## 2.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신뢰성 분석 결과 전체항목의 신뢰도는 .927로 나타나 설문문항의 신뢰성이 높음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측정 변수(20개 항목)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요인추출 방법은 주성분을 이용하였고, 베리맥스(Varimax) 방법으로 요인회전을 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토대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카이자승은 425.335, 자유도는 164, 통계량의 유의확률은 .000으로 나타났다. 통계량의 유의확률이 .05이상일 때 모형이 모집단 자료에 적합하다는 귀무가설을 채택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것은 적합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값이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카이자승/자유도의 값이 검토되고 있어 이를 검증하였다.

〈표 5〉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구분	항목	요인적재량	아이겐값	분산설명력	커뮤넬러티	신뢰도
태도	태도-3	.869			.756	
	태도-4	.868			.753	
	태도-6	.854			.729	
	태도-2	.835	4.681	66.871	.698	.915
	태도-5	.789			.622	
	태도-7	.755			.570	
	태도-1	.744			.553	
	KMO: .874		유의확률 .000			
주관적 규범	주관적규범-2	.917			.834	
	주관적규범-1	.913	2.476	82.545	.840	.892
	주관적규범-3	.896			.802	
	KMO: .747		유의확률 .000			
행동조절	행동조절-2	.845			.714	
	행동조절-3	.830			.688	
	행동조절-1	.814	3.795	63.251	.663	.886
	행동조절-4	.765			.585	
	행동조절-5	.759			.576	
	행동조절-6	.754			.569	
	KMO: .865		유의확률 .000			
참가의도	참가의도-2	.878			.770	
	참가의도-1	.836	2.828	70.710	.698	.861
	참가의도-3	.833			.694	
	참가의도-4	.816			.665	
	KMO: .803		유의확률 .000			

카이자승/자유도의 값은 3보다 적어야 전반적인 적합도를 만족하는데(김계수, 2004), 본 연구에서는 2.594로 나타나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외의 적합도 지수는 GFI .852, AGFI .810, RMR .036, NFI .870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부합지수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최적 모형 기준치에 약간 미흡한 지수로 보여진다. 이러한 상황은 좀 더 보완적인 차원의 다른 적합도 지수 평가가 요구된다. 최근 적합정도를 판단하는데 선호되고 있는 또 다른 지수는 CFI와 Delta2 IFI가 있으며, CFI와 Delta2 IFI는 모두 1에 가까울수록 양호한 모형으로 판단된다(김계수, 2004). 본 연구에서의 이들의 적합도를 확인해 본 결과 CFI는 .915, Delta2 IFI가 .916으로 나타나 이 지수에서는 모형이 적합함이 확인되어 이러한 지수에 의해 모형의 적합함을 확정하였으며, 구체적인 각 지수들은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구분	항목	추정치	표준화 추정치	표준오차	C. R. (t값)	P	AVE <sup>a</sup>	개념신뢰도 <sup>b</sup>
태도	태도7	1.000	.710	-	-	-	.756	.956
	태도1	.862	.687	.085	10.186	***		
	태도5	1.031	.755	.092	11.180	***		
	태도2	.923	.802	.078	11.868	***		
	태도6	1.098	.821	.090	12.158	***		
	태도3	.997	.857	.079	12.664	***		
	태도4	1.069	.848	.085	12.548	***		
주관적 규범	주관적규범3	1.000	.838	-	-	-	.828	.935
	주관적규범2	.924	.887	.056	16.474	***		
	주관적규범1	.993	.853	.063	15.702	***		
행동조절	행동조절6	1.000	.693	-	-	-	.636	.912
	행동조절5	.810	.682	.084	9.637	***		
	행동조절1	1.053	.785	.096	10.967	***		
	행동조절4	.898	.683	.093	9.660	***		
	행동조절2	1.053	.835	.091	11.569	***		
	행동조절3	1.075	.798	.097	11.124	***		
참가의도	참가의도4	1.000	.754	-	-	-	.735	.917
	참가의도3	.904	.783	.077	11.778	***		
	참가의도1	1.036	.759	.091	11.400	***		
	참가의도2	1.095	.831	.088	12.463	***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와 분산추출지수(variance extracted)를 검증한 결과 개념신뢰도는 .7이상, 분산추출지수는 .5이상 일 경우 적합하다는 기준(김계수, 2004)에 모두 수용되었으며, 뿐만 아니라 개념타당성인 판별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각 요인내의 항목간의 상관분석과 각 요인간의 상관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평균분산추출의 제공근은 모든 요인에서 변수들의 상관관계 계수를 상회하고 있어 판별타당도를 확보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표 7〉 판별타당성 및 상관관계 분석 결과

구분	태도	주관적규범	행동조절	참가의도	AVE	CR	$\sqrt{AVE}$
태도	1				.756	.956	.869
주관적 규범	.726**	1			.828	.935	.909
행동조절	.408**	.489**	1		.636	.912	.797
참가의도	.591**	.536**	.523**	1	.735	.917	.857

\*\*p&lt;0.01. N=238

### 3. 모형 및 가설 검증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chi^2$ 은 340.210(df, 161),  $p < .001$ , GFI .878, AGFI .841, RMR .036, NFI .896, IFI Delta2 .942, CFI .942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수용 가능한 적합도 수치임이 확인된다. 요인별 구체적인 영향관계를 살펴보면, 태도와 참가의도간 영향관계에서는 경로계수 값이 .398, t값은 4.016, 유의확률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태도가 참가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주관적 규범과 참가의도간 영향관계에 있어서는 경로계수 값이 .093, t값은 .929, 유의확률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주관적 규범은 참가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세 변인 중 주관적 규범의 설명력이 다른 변인들에 비하여 현저히 낮다는 선행연구(Hausenblas *et al.*, 1997; Armitage & Conner, 2001; 박진경, 2009) 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 다음으로 지각된 행동 조절과 참가의도간 관계를 살펴보면, 경로계수 값은 .316, t값 4.207, 유의확률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지각된 행동 조절은 참가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종합해보면, 컨벤션 참가 행동 모델에서는 ‘태도’와 ‘지각된 행동조절’은 참가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주관적 규범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8〉 연구모형 검증 결과

	경로		경로계수	표준오차	C. R.(t-value)	p
H1	태도	→ 참가의도	.398	.103	4.016	***
H2	주관적 규범	→ 참가의도	.093	.087	.929	.353
H3	지각된 행동 조절	→ 참가의도	.316	.068	4.207	***

한편 컨벤션 참가 모델에 있어서 제주도 방문횟수에 따른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제주도 첫 방문자와 재방문자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첫 방문자는 38.7%를 차지하였고 재방문한 사람은 60.6%로 나타났으며, 각 집단별 모형을 분석한 결과, 컨벤션 참가 태도와 참가의도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첫 방문 집단의 경우 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재방문 집단에서는 유의한 것으로 도출되었으며, 주관적 규범과 참가의도 간에서는 첫 방문 집단과 재방문 집단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각된 행동 조절과 참가의도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첫 방문 집단과 재방문 집단 모두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재방문 집단보다 첫 방문

집단의 해당 경로계수가 크게 나타남으로서, 제주도의 경우 컨벤션 참가자들의 첫 방문시의 지각된 행동 조절이 참가의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9〉 집단별 적합도 분석 결과

경로	경로계수	표준오차	C. R.(t-value)	p
H1 태도 → 참가의도	.292	.178	1.761	.078
H2 주관적 규범 → 참가의도	.189	.173	1.048	.295
H3 지각된 행동 조절 → 참가의도	.357	.107	2.885	.004
Chi-square = 272.774 df=161 P= .000, CMIN/DF = 1.694				
GFI= .782, AGFI=.715, RMR=.047, NFI= .821, IFI Delta 2=.918, CFI=.916				
H1 태도 → 참가의도	.419	.127	3.361	***
H2 주관적 규범 → 참가의도	.076	.100	.616	.538
H3 지각된 행동 조절 → 참가의도	.249	.090	2.576	.010
Chi-square = 279.024 df=161 P= .000, CMIN/DF = 1.733				
GFI=.842, AGFI=.794, RMR=.041, NFI= .858, IFI Delta 2=.935, CFI=.933				

〈표 10〉 다중집단분석에 의한 검증결과

경로	표본	경로계수	표준오차	C. R.(t-value)	차이기각율
태도 → 참가의도	첫방문	.292	.178	1.761	-.541
	재방문	.419	.127	3.361	
주관적 규범 → 참가의도	첫방문	.189	.173	1.048	.521
	재방문	.076	.100	.616	
지각된 행동조절 → 참가의도	첫방문	.357	.107	2.885	-.598
	재방문	.249	.090	2.576	

\*\*\*p<.001

다음으로, 제주도 방문횟수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집단분석(Multi Group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다중집단분석은 집단 간 경로계수 차이를 검증함에 있어 다중회귀분석처럼 표준화 회귀계수 차이로 집단 간 영향력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차이기각율(critical ratio for differences)을 통해 집단 간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해준다. 차이기각율의 통계량은 절대값을 기준으로 1.96(p<.05)이상으로 제시될 때 유의하며, 이는 집단 간 경로계수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채택하는 기준이 된다. 본 연구에서의 두 집단 간 경로계수 차이검증 결과, 태도와 참가의도간 경로에서는 차이기각율이 -.541, 주관적 규범과 참가의도간 경로에서는 .521, 지각된 행동 조절과 참가의도간 경로에서는 -.598로 나타났다. 세 경로 모두에서 차이기각율이 절대값을 기준으로 1.96(p<.05)이하로 나타났으며, 이는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제주도 방문회수의 조절

효과는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한 가설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1〉 가설 검증 결과

구분	가설	결과
H1	컨벤션 참가자의 태도는 참가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2	컨벤션 참가자의 주관적 규범은 참가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H3	컨벤션 참가자의 지각된 행동조절은 참가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4	컨벤션 참가자의 태도와 참가의도 간의 영향관계에는 제주도의 첫 방문자와 재방문자간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기각
H5	컨벤션 참가자의 주관적 규범과 참가의도 간의 영향관계에는 첫 방문자와 재방문자간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기각
H6	컨벤션 참가자의 지각된 행동조절과 참가의도 간의 영향관계에는 첫 방문자와 재방문자간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기각

##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회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컨벤션 참가자의 행동을 계획행동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컨벤션 참가자들의 행동 모델에서 계획행동이론의 유용성은 입증되었으며, 사용된 모든 측정변수들에 대한 신뢰도 및 타당도가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인 결과를 보면 '행동에 대한 태도'와 '지각된 행동조절'은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주관적 규범은 행동의도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유네스코 자연부문 3관을 달성한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회의에 참가하는 것은 특별하고 가치있는 일이라는 '태도'와 참가할 경제적/시간적 능력과 주체적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지각된 행동조절'은 참가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주변 사람들의 의견 등은 참가의사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컨벤션 참가와 관련하여서는 컨벤션 목적이나 주체에 따라 참가동기가 다르지만 흔히 '즐거움과 오락 추구', '비용 및 편의 추구', '소득감 및 사회교류', '지식 추구 등으로 구분되어진다(김대관 등, 2010). 특히 학회 등이 주최하고 전문가 그룹이 참가하는 학술대회의 경우, 지식이나 정보 추구, 네트워킹 강화와 같은 요인이 크게 작용하게 된다. 전문지식 획득이나 동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의 교류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컨벤션의 경우 회의 참가자에게는 주변 가까운 타인의 의견이나 압력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제주관광의 특성화 콘텐츠로서 컨벤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최근 형성된 자연경관, 환경 등의 제주관광 이미지를 토대로 주최자는 물론,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제주의 독특한 매력을 통한 관광기회가 크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특히, '회의'나 '인센티브관광'에 중심을 두어 제주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자연·인문 관광자원을 활용한 리조트 기반형 컨벤션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외에도 계획행동이론 자체의 한계에서 나온 것처럼, 세 변인 중 설명력이 낮은 주관적 규범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많은 연구자들은 주관적 규범이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다른 종류의 규범을 모색하게 되며, 기술적 규범은 그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다. 기술적 규범은 주관적 규범 외의 추가 변인이 아니라 주관적 규범이 포함하고 있는 하위차원의 일부로 정리된다(Ajzen, 2005). 따라서 연구주제나 상황에 따라 계획행동이론의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 세 변인 외에 추가적인 변수를 사용하고 있음에 근거하여, 컨벤션 참가 행동 모델에서도 사전지식, 과거경험 등과 같은 추가 변인 고려를 제언한다. 이는 실무적 관점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제주컨벤션부로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서 보는 것처럼, 컨벤션 주최자들의 높은 관광 만족도는 유명 관광 목적지로서 제주도의 위상이 드러나는 것으로, 참가자 대상 관광 프로그램이나 지역 특성을 기반으로 한 이벤트개발 등을 통해 참가자의 참가경험 만족도를 제고해야 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조사대상자가 내국인, 의약학을 주제로 한 1회의 회의 참가자에 한정되었다는 한계를 노정한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서는 나름대로 고른 분포를 보이지만, 학력이나 직업에서 나타나는 편중현상이 대변해 주고 있으며, 이런 상황이 주관적 규범의 참가의도에 대한 영향관계가 무의미한 결과로 제시된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후학에서는 제주도에 주어진 여건을 기초로 한 인간행동 예측이론과 함께 동기와 만족간 관계, 하와이나 오키나와와 같은 섬관광 목적지 등과 함께 이루어진다면 비교우위 관점에서 제주관광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김계수(2004). 『Amos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서울: SPSS 아카데미.
- 김대관·조연·김학준(2010). 컨벤션 참가자 참가동기와 컨벤션 서비스 중요도 만족도에 관한 연구. 『관광·레저연구』, 22(5), 263-281.
- 김철원(2008). 『컨벤션 마케팅』. 법문사.

- 김형석·조현익(2008). 계획행동이론을 적용한 디지털 콘텐츠 충동구매에 관한 연구: 감각추구 성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학술연구 발표 논문집』 대한경영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 김혜자(2011). 확장된 계획행동모형을 이용한 중국인 농촌관광 행동의도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홍렬·이태희·윤설민(2010).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을 통한 테마파크 방문에 대한 행동의도 연구: 즐거움의 역할 탐색. 『관광연구저널』, 24(2), 5-23.
- 박진경(2009). 여가활동에 따른 여가선택행동 영향요인의 차이: 계획행동이론을 중심으로. 『학술연구 발표 논문집』 한국관광학회 충남국제관광학술대회.
- 송영민(2005). 계획행동이론을 통한 생태관광 가이드라인(Eco-Tourism Guideline)의 효과분석: 갯벌체험 활동 참가 청소년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2(4), 473-487.
- 우형진(2008). 텔레비전 드라마 시청이 시청자의 성형수술 행위 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계획행동이론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8(4), 480-513.
- 이양수(2010). 계획적 행위이론을 적용한 여가행동 영향요인 분석. 『문화경제연구』, 13(1), 107-131.
- 이준엽·안태기(2008). 축제방문자의 먹거리 구매행동 예측에 대한 계획행동이론의 적용.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8(2), 116-124.
- 이충기·송학준(2010).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을 이용한 갬블링 열정과 행동의도간 구조관계 분석. 『관광학연구』, 34(3), 125-145.
- 이학식·안광호·하영원(2010). 『소비자행동-마케팅 전략적 접근』. 법문사.
- 이혜련·윤유식(2011). 컨벤션 개최지 이미지가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컨벤션 개최지 개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35(3), 225-241.
- 임윤정(2008). 계획행동이론을 적용한 외래관광객의 한류문화콘텐츠 행동예측모형: 한국 드라마와 음반을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영미(2011). 외래관광객의 한국문화 친숙도가 한식소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동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희진·이계희(2010). 신한류가 일본과 중국관광객들의 한국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계획행동모형을 근거한 관여의 조절역할에 대한 탐색. 『관광학연구』, 34(6), 249-270.
- 제주컨벤션뷰로(2012). 『2011년 제주컨벤션뷰로 이용자 고객만족도 조사분석 보고서』.
- 차동필(2009). 미디어 수용자의 헌혈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공중건강 캠페인에의 함의. 『미디어 경제와 문화』, 7(2), 96-127.
- 최영정(2010). 계획행동이론을 적용한 관광객의 책임관광 행동모델 구축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자영·김경자(2003). 계획적 행동이론을 적용한 소비자들의 온라인 쇼핑 행동 분석. 『소비자학연구』, 14(4), 89-103.
- 한덕웅·이민규(2001). 계획된 행동이론에 의한 음주운전 행동의 설명.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2), 141-158.
- 허향진·김태구(2008). HIS 이용의도와 이용행동의 예측과 이해를 위한 비교우위 경쟁 이론모형 판별. 『관광학연구』, 32(1), 187-208.
- 현용호(2012).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을 통한 제주 올레길 재방문의도 예측요인 검증: 올레길 방문 만족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36(7), 55-74.
- Armitage, C. J., & Conner, M.(2001). Social cognitive determinants of blood donation.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1(7), 1431-1457.
- Ajzen, I.(1985). *From intentions to actions: A theory of planned behavior*. In J. Kuhl & J. Beckham (Eds.), *Action control: From cognition to behavior* (pp. 11-39). Heidelberg: Springer.
- Ajzen, I.(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Organizational Behaviou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179-211.
- Ajzen, I.(2002).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self-efficacy, locus of control, and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2(4), 1-20.
- Ajzen, I.(2005). *Attitudes, personality, and behavior* (2nd. Edition). Milton-Keynes, England: Open University Press / McGraw-Hill.
- Baker, E. W., Al-Gahtani, S. S., & Hubona, G. S.(2007). The effects of gender and age on new technology implementation in a developing country: Testing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TPB). *Information Technology & People*, 20(4), 352-375.
- Baloglu, S., & McCleary, K. W.(1999). A model of destination image formation. *Annals of Tourism Research*, 26(4), 868-897.
- Bamberg, S., Ajzen, I., & Schmidt, P.(2003). Choice of travel mode i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The roles of past behavior, habit, and reasoned action.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25(3), 175-187.
- Cheng, S., Lam, T., & Hsu, C. H. C.(2006). Negative word-of-mouth communication intention: An application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Journal of Hospitality and Tourism Research*, 30(1), 95-116.
- Fishbein, M., & Ajzen, I.(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Reading, MA: Addison-Wesley.

- Han, H., Hsu, L.-T., & Sheu, C.(2010). Application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to green hotel choice: Testing the effect of environmental friendly activities. *Tourism Management*, 31(3), 325-334.
- Hausenblas, H. A., Carron, A. V., & Mack, D. E.(1997). Application of the theories of reasoned action and planned behavior to exercise behavior: A meta-analysis. *Journal of sport & exercise psychology*, 1(1), 36-51
- Hrubes, D., Ajzen, I., & Daigle, J.(2001). Predicting hunting intentions and behavior: An application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Leisure Sciences*, 23(3), 165-178.
- Johnston, K. L., & White, K. M.(2003). Binge-drinking: A test of the role of group norms i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Psychology and Health*, 18(1), 63-77.
- Lam, T., & Hsu, C. H. C.(2006). Predicting behavioral intention of choosing a travel destination. *Tourism Management*, 27(4), 589-599.
- Rhodes, R. E., & Courneya, K. S.(2004). Differentiating motivation and control i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Psychology, Health & Medicine*, 9(2), 205-215.
- Shih, Y. Y., & Fang, K.(2004). The use of a decomposed theory of planned behavior to study internet banking in Taiwan. *Internet Research*, 14(3), 213-223.
- Sparks, B.(2007). Planning a wine tourism vacation? Factors that help to predict tourist behavioural intentions. *Tourism Management*, 27(4), 1180-1192.
- Sparks, B., & Pan, G. W.(2009). Chinese outbound tourists: understanding their attitudes, constraints and use of information sources, *Tourism Management*, 30(4), 483-494.

2013년 7월 25일 최초투고논문 접수

2013년 9월 16일 최종심사완료 및 게재확정 통보

2013년 11월 3일 최종논문 도착

3인 익명심사 료